

사슴사육

안운식

(대한제당 무지개사료)

오래전부터 사슴은 친근감 있고 귀한 동물로서 취급 되었고 특히 녹용은 동양의학에서 '신비의 약'이라고 불리어 왔다. 현대과학으로도 그 오묘하고 신비스런 녹용의 효험을 나타내는 성분이나 체내작용을 확실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사슴은 소나 양과는 달리 매년 신비스럽게 뿔을 새로 갈아 서양에서는 언제나 새로 젊어지는 장수의 동물이면서도 모든 악마와 싸우는 정의의 불사신이라고 비유했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칸디나비아반도에는 유럽산 순록(Rein Deer)이 축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모피와 고기는 주요 수출품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슴사업이 이루어진 역사는 상당히 오래전 부터라고 한다.

원래 사슴고기는 유럽인 들에게는 터부의 식육이었지만, 사슴을 좋아하는 어느왕이 자기 영토중의 일부를 사슴 보호지역으로 선정하여 아무도 그지역내에서는 사냥을 할 수 없게 하였는데, 그 지역에 사는 한 농부는 항상 이들 사슴떼가 몰려와 자기밭을 망쳐놓고

있어서 어느날은, 왕명을 거역하고 농토를 짓밟는 사슴을 잡아 그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사슴고기를 먹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사육이 시작되기는 戰後 황폐된 고향으로 돌아온 병사가, 넓은 땅을 방황하고 있는 사슴떼를 보고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것이 사슴사육이었다. 그는 일정한 지역에 사슴떼를 모아 기르면서 가죽과 고기를 팔고 그 두엄을 이용 땅을 비옥하게 한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사슴의 종류를 보면, 아메리카대륙의 대형사슴인 엘크(Elk), 유럽산으로는 순록계통(Rein Deer), 아시아 품종으로는 만주록, 대만록 꽃사슴, 일본산 애조사슴, 그리고 한국의 토종등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만주록과 대만산 꽃사슴을 최적으로 치고 있는데 그녹용의 효과가 다른것에 비하여 가장 낫다고 한다. 잠시 녹용에 관한 생산과정을 살펴보자.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어 4~5월경부터 새로 돌아난 뿔은 한창 자랄때는 잔잔한 털이 덮여있고 혈관이 뿔내부에 통하기 때문에 만져보면 말랑 말랑하고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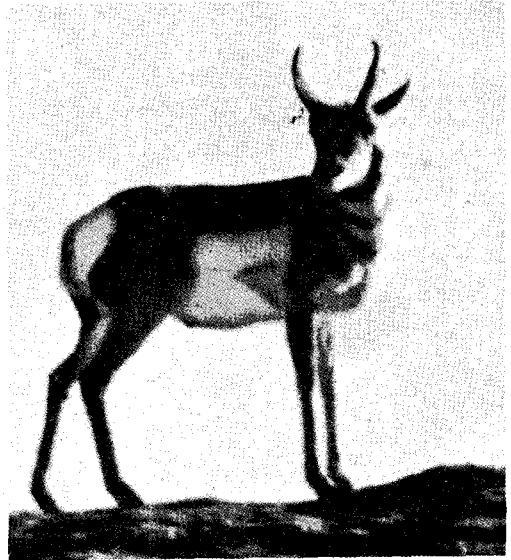


스한 체온이 느껴진다. 일년에 가지를 하나씩 쳐서 3년생이면 세갈래 가지를 치고 보통 다섯가지 이상은 치지 않는다고 한다. 수컷만이 가진 자랑스런 위엄과 무기구실을 하지만, 뿔이 나기 시작해서 45~50일쯤 되면 더이상 크지는 않는다. 이때 연한 가지를 자르면 피가 흐르는데 이 피를 녹혈이라 하고 그뿔을 용이라 한다. 만일 이때 절각하지 않은채 내버려 두면 가지 끝에서부터 차츰 한관이 말라 붙고 단단한 각질로 변하여 늦가을 초겨울이 지나면 딱딱한 뼈와같이 되어 녹용으로서의 가치가 없게되는데 이것은 녹각이라고 불리우며 이른봄 되기전에 저절로 빠져 버리게 된다. 이것은 장식용으로나 쓸수 밖에 없다.

한편 녹용은 가지의 부위를 3등분하여 상대, 중대, 하대로 나뉘어 이중 끝부분인 상대가 가장 녹용으로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값이 더 비싸게 여긴다. 보통 동물원에서는 뿔을 그대로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녹각이 되도록 놓아두었다가 번식기에 이르러 숫사슴끼리 투쟁한다든가, 발정한 암컷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절각(뿔자르기)을 하게된다. 절각부위는 주로 각좌부위에서 절단한다.

녹용의 생산량은 보통 소형사슴(일본 꽃사슴, 만주록, 대만꽃사슴등)은 1두당 2~3kg(건조시키면 0.4~0.8kg), 대형사슴(아메리카산 Elk)은 5~8kg(건조시 1~1.5kg)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육방법에 따라서 년 2회정도 절각을 하기도 한다. 이들 녹용은 금싸라기를 달듯 비싼값으로 거래된다. 우리나라에는 양록협회가 있어 상호 회원간에 정보를 교환하며, 품종을 도입하여 분양도하고 보호사육의 보급에 힘쓰고 있다.

사슴의 사육은 그리 어렵지 않고 그 습성을 이용하여 누구든 쉽게 키워나갈 수 있다. 먼저 장소선정에 있어 사슴의 성격모양 조용



하고 자연수가 있는 산기슭로 나무숲이 있는 곳이 좋은데, 경사도가 30°까지 무난하지만 사슴중에는 발목 관절의 각도가 심히 구부러진 것은 경사도가 심할경우 뛰어다니다가 힘을 받아 관절을 다치는 경우가 있어 평지사육이 좋다. 보통 방사장에 수용하는데 사료급사대가 있는곳에 쉼터(shelter)를 설치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울타리(Fence)는 사슴의 점프능력으로 보아 2.7~3.4m 정도높이로 설치할것이 권장된다. 철망은 탄력성이 있는 굵은철사(8번선정도)를사용하고 다두사육인 경우 Fence위에 전책(strip)을 설치하여 탈출의(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동물은 자기능력 이상을 뛰어 넘는다)위험을 막는다.

사슴은 반추초식가금의 범주에서 사료를주면 대차없다고 본다. 배합사료(농후사료)와 조사료(청초 및 겨울에는 건초)를 적당량 주면 식성만큼 먹는다.

여름에는 주로 청초를 먹는데, 아카시아잎 및 줄기껍질, 킴덩쿨, 당근을 몹시 좋아하여 혼합해 주면 좋은것만 골라서 먹는데 사료량은 청초는 체중의 10%까지 농후사료는 체중

의 0.5~1.0% 정도, 농후사료로서는 배합사료가 영양적으로 균형이 있어 좋은데 주로 비육우용이나 농축우용이 적당하다고 하겠다.

배합사료는 너무 주면 과비(fattening)가 일어나 번식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어떤곳에서는 가을에 도토리를 모아 두었다가 봄에 녹용을 생산할 시기에 자유급식 시키는데 이것은 뿔의 성장과 윤기를 좋게 해준다고 한다. 도토리에는 탄닌성분이 많은데 탄닌은 분의 형태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녹용을 좋게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사슴은 비교적 번식을 잘하는 편인데 임신기간은 245~255일 정도이고, 생존수는 1~2두 분만을 순조롭게 하는 편이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나 가끔 과비된 경우나 임신중의 영양결핍으로 난산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 이때는 인공분만을 하게 되는데, 인공분만시 소독하고 청결, 보온을 해주었으나 어미가 포유를 거부하거나 발로차서 죽인예가 있었다. 이유는 어미가 새끼의 냄새를 맡아 보니 새끼본래의 냄새가 나지 않고 소독약이나 다른 사람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었다. 이때는 동물특유의 냄새를 유지시켜 주든지 아니면 계속 인공포유를 시켜야 한다.

사슴은 잘 놀래고 사람을 보면 얼른 달아나서 숨기를 잘하는데 이때문에 동물원에서는 갓난새끼를 인공포유로서 길러 사람과 친

숙하게 하고있다. 인공포유에 의한 사슴은 사람을 잘 따르고 어린아이들이 주는 사료를 잘 받아먹는다. 사슴의 인공포유는 무척힘들다. 완전히 일정한 시기가 될때까지 거의 침식을 같이 해야하고 일찍 해야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냄새를 좋아하도록 보살펴 줘야하기 때문이다. 처음 인공포유를 시작 할때는 생후 2주까지 모유를 먹인다(初乳給與後) 어미와 격리하여 사람과 침식을 같이 해야한다. (표)에서 보듯이 사슴은 다른동물에 비해서 유성분상 지방과 단백질의 수준이 높기때문에 이에 맞추어 급식계획을 세워야한다. 주로 젖소용 대용유(milk replacer)와 계란 노른자 소화제(원기소)를 배합하여 젓꾸지가 달린 젓병을 사용한다. 처음 일주일간은 하루 6회이상 규칙적으로 먹이면서, 인공배변을 시켜주어야 한다. 탈지면을 따뜻한 물에 적서 여러번 맛사지 해주면 잘된다. 무엇보다도 첫 일주일간에 사육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젓병을 들고 나타나면 조르르 따라 나올 정도가 돼야한다. 사육자에의 경계심을 풀지않는 이상 인공포유는 성공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여 차츰 유량도 늘리고 물과 조사료는 항상 자유급식 할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인공포유된 사슴은 사람을 잘 따르기 때문에 후에 치료를 할때라든가 검사를 해야할 경우 편리하다.

(표) 우제류 유성분표

종 류	수 분	지 방	단 백 질	유 당	회 분	DM	수유간격
일 본 사 슴	63.9%	19%	12.4%	3.4%	1.4%	18.5	10~12/일
대륙사슴(만주)	65.9	19.7	10.6	2.6	1.4	18.5	8~12
순록(Rein deer)	66	9.2	7.2	3.9	-	22.2	8~10
노 루	64.8	18.5	10.7	3.9	-	-	-
소(젓 소)	87	3.7	3.5	4.8	0.72	12.7	수 시
돼 지	84	5	3.7	5	0.65	13	"

(자료. 동물사육 Hand book : Japan)